환호·탄식… 그래도 뜨거웠던 빛고을 '붉은 함성'

광주월드컵경기장 등 도심 곳곳 월드컵 응원전

친구끼리 가족끼리 목놓아 "대~한민국"…"멕시코전도 응원해야죠"

18일 밤 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연신 '대한민국'을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이날 경기장에 모인 2만여명 시민들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과의 조별 예선을 치르는 한국 대표팀을 목놓아 응원했다.

한국 대표팀이 기회를 잡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주도권을 빼앗기면 옆 사람을 붙들고 안타까워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경기 내내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한 광주시민 사이에서는 후반 20분 스웨덴 대표팀의 안드레아스 그란크비스트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정적은 곧 환성으로 바꼈고 친구 또는 가족, 연인끼리 삼삼오오 몰려든 응원단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동점을 기원했다.

시민들은 저마다 미리 준비해 온 치킨과 맥주 등 야식을 곁들며 열렬히 응원했다. 한국대표팀 유니폼을 본딴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50대 중년부터 불이 켜지는 빨간색 뿔모양 머리띠를 한 초등학생 어린이까지 응원열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뜨거웠다. 지난 2002년 한국과 스페인의 8강전을 재현케 하는 모습이었다.

한국팀의 일거수 일투족에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잘했을 때는 함성을, 실망스러운 장면에서는 긴 한숨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왔다.

전반 20분 골키퍼 조현우가 스웨덴 공격수 마르쿠스 베리의 슛을 막는 슈퍼세이브를 선보이자 '새로운 축구스타 탄생'이라며 저마다 호평했다.

후반 28분 구자철 선수가 나가고 이승우 선수가 새로 들어오자 동점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눈이 반짝였다. 이승우를 외치는 응원소리는 커져만 갔다.

미래의 축구국가대표를 꿈꾸는 20여명의 월곡초등학교 축구부 학생들도 쉬지 않고 응원가를 불렀다.

이영민(12·6학년)군은 "이용 선수를 가장 좋아해 축구부 포지션도 오른쪽 풀백을 하고있다"면서 "비록 경기는 졌지만 스웨덴 선수들이 이용 선수의 장기인 정교한 오른발 크로스에 경기 내내 고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웃었다.

김승준(30·광산구 월계동)씨는 "중학생이던 2002년 월드컵 때 상무시민공원에서 거리응원을 하던 추억이 생각나 16년 만에 친구들과 함께 거리응원을 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아왔다"면서 "승패를 떠나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다.

월드컵경기장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광주시내 호프집에서 응원전을 벌였다.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인근에 자리한 치킨 전문점은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단체 예약손님으로 가득 찼으며, 동구 광산동 구시청사거리 일대 술집들에서도 '대~한민국'을 외치는 응원소리가 들렸다.

현대자동차가 마련한 애견팬파크가 차려진 광주 북구 망월동의 한 애견카페에서는 애견인 30여명이 반려견과 함께 이색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과 스웨덴과의 경기가 열린 18일 광주시민들이 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열차 운행 중단땐 배상금…부정승차 '운임 30배'

코레일 7월부터 시행

7월부터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 고객은 운임 외에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표 없이 타는 얌체 승객을 막고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운임 기준이 최대 30배로 커진다.

코레일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반영하고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열차운행 중지 배상제도 등을 담은 여객운송약관을 7월 1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열차운행 중지 배상제도는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미 받은 운임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하는 제도로 이번에 신설됐다.

열차가 운행 중지된 사실을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요금의 10%, 1시간~3시간 이내는 3%를 배상하고, 열차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요금의 10%를 배상한다. 부정승차는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유형에 따라 부가운임 규모를 차등화(0.5~30배)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예약부도(노쇼)를 최소화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반환제도 등도 개선한다.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반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일요일(공휴일)에는 예약부도 방지와 조기반환 유도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 병원 입원 등 사유로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일 만큼의 운임을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승차권반환 위약금을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나 현금으로 따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지연 보상금 수령도 현금이 아니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9월 5일 수능 모의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9월 5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의평가는 수험생이 문제 유형에 적응해 자신의 학업 능력을 점검하고, 출제기관이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6월과 9월 한 차례씩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25일부터 7월 5일까지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모의평가의 시험영역과 EBS 연계율(문항 수 기준 70%)은 2019학년도 수능과 같다.

/김형호 기자 khh@

대법 전원합의체 '종교적 병역거부' 14년만에 재판단

8월 30일 공개변론 '정당한 사유' 쟁점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14년 만에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내외 사법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 수가 100건이 넘고,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판단이 갈리면서 다시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리를 정리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선관위, 아버지 신분증으로 투표한 50대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아버지를 대신해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모(54)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3일 곡성군 한 투표소에서 84세 아버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했다가 연령을 의심한 투표사무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고모(4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씨는 같은 날 강진군 한 투표소에서 고성과 소란을 피우다가 사무원의 제지를 받고도 투표용지 3장을 찢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오늘의 날씨

해뜸	05:18	달뜸	11:06
해짐	19:50	달짐	--:--

곳곳 비 소식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 내리는 곳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21/26	보 성	흐리고 비	18/24
목 포	구름많음	21/25	순 천	흐리고 비	20/24
여 수	흐리고 비	20/22	영 광	흐리고 비	19/25
나 주	구름많음	19/26	진 도	구름많음	19/24
완 도	흐리고 비	20/24	전 주	구름많음	20/27
구 례	흐리고 비	19/25	군 산	구름많음	19/25
강 진	흐리고 비	20/24	남 원	구름많음	19/25
해 남	흐리고 비	19/25	흑산도	구름많음	18/21
장 성	구름많음	18/2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1.0
	먼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	0.5	남동~남	0.5~1.0
	먼바다(동)	동~남동	0.5~1.5	북동~동	0.5~1.5
	먼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2.0

◇ 생활지수

식중독	위험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38	06:31
	23:46	18:43
여수	07:13	01:05
	19:26	13:27

◇ 주간 날씨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0/29	19/30	19/29	19/30	21/31	21/28	20/28

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영광

영광군의회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 석기영
영광군교육청 교육장 김준석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 지부장 한상옥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구희우
영광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박호해
영광군산림조합 조합장 정용재
농협중앙회종돈사업소 소장 오동원
영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준화
백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대상
서영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병원
굴비골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천영문
영광기독병원 이사장 김경옥 병원장 이만재
한국농어촌공사영광지사 지사장 성도남